

## 年850억 교과부 학교재해대책비 89% 엉뚱한 곳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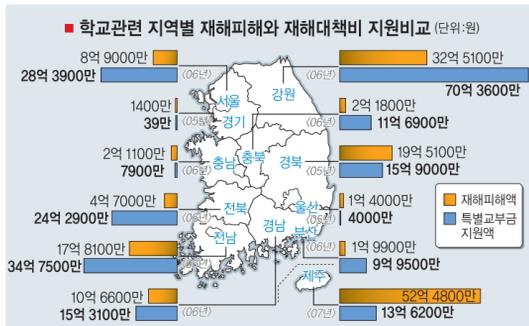
서울신문·시민행동 분석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약 89%가 당초 목적과 달리 건축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 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국회 감시안받는 '권력층 썩짓'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청 재정이 재정부담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청이 재정부담 명목으로 각각 95.4%(754억 2000만원)와 73.7%(607억 5300만원)가 재해대책비에서 지원됐다.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



도 요청액보다 많이 지원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에 지원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2배 지원... 제주는 25%뿐

2006년 3~10월 사이 강원지역은 태풍과 호우로 32억 5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액은 2배가 넘는 70억 36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7월 충남 지역 4개교는 2억 1100만원 상당의 호우 피해에 지원액은 7900만원에 불과했다. 2007년 9월에는 제주지역 84개교가 태풍 나리호 52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13억 6200만원만 지원됐다. 반면 충남은 피해액 6500만원에 5억원

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인천지역 피해액은 '0'이었는데도 교과부는 2769만여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재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4개 지역에 모두 4734만여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육시설지원과 관계자는 "재해대책비는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보험 미가입 건물에 한해 지원하는 만큼 피해액보다 지원액이 적게 나갈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에 국회의원 등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획탐사부

▶2면에 계속/관련기사 6면

## 우유 끊는 서민들

매일 인상...올들어 24% 폭등  
 업계 "사료값 대려면 더 올려야"

김모(29·여·경남 김해)씨는 초등 학교 1학년 아들의 지난달 급식비 인상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유값이 7월보다 월 3000원이나 인상된 것. 직장인 이모(28·서울 동작구)씨는 아침마다 마시던 우유를 최근 끊었다. 1ℓ에 1850원하던 우유값이 2180원으로 인상된 탓이

다. 이씨는 3일 "우유 한 잔의 여유를 잃는 서민의 좌절감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우유값이 1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우유값이 무서워 우유를 못마시는 '우유파동'이 일고 있다. S사는 1ℓ를 기준으로 지난 7월에 100원을 올리고, 지난달에는 330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올해 초에 비해 24.5% 올랐다. M사와 N사도 곧 비슷한 폭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가공업체·유통업체·낙농가 등은 아직도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이번 가격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1ℓ당 584원이던 원유(原乳)가격이 704원으로 12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낙농업자들은 2년간 2배로 오른 사료가격을 벌충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rludwn@seoul.co.kr

▶2면에 계속

## IMF "9월위기설 과장" "경상적자·환율, 유가가 주원인" 환율 1160위협... 정부개입 진정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이 잇따라 '9월 위기설' 등 지나친 한국경제 위기론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IMF 한국사무소는 3일 보도문을 내고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성격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며 관련 리스크(위험)는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탈 카라솔루 IMF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단기외채의 증가가 일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가 다소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으나 이 현상은 주로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어려운 국제상황과 교역조건의 현저한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상수지 악화가 조정되지 않은 환율에 기인했던 97년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사장단협의회도 이날 열린 정기 수요회의에서 금융·자

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별 현금흐름(유동성)을 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위기론 확산 차단 노력도 연일 이어졌다. 전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환율이 오르

고 국제수지와 경기가 나쁘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위기설이 확장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증권사 객장에 직접 투입하는 등 악성투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근거 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 불안을 조성하는 자료를 작성, 유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 중 한때 1160원에 다가서기도 했으나 외환당국의 두차례 달러 매도개입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14.50원 급등한 114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40원대 종가는 2004년 10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3년 11개월 만이다.

임창순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seoul.co.kr

▶관련기사 3·4·17면



"종교편향 풀어봅시다" 정부의 종교편향에 반발한 불교계가 대규모 범불교대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불교계 위로자 3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권오성 총무와 대한성공회 신부인 김광준(왼쪽) NCCK 종교간대화위원장을 지관(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이 웃으며 맞이하고 있다. ▶기사 10면 연합뉴스

## 어청장 경질 불교계 요구 박희태대표 靑 건의 시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과 관련, "조만간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계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요구에 대해 "불교계에서 어청장의 경질을 포함한 4대 요구를 했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청와대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불교계에서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안을 찾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어권이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요구를 수용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불교계에) 사과를 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해 지금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北 核시설 복구 시작

외교부 당국자 확인... 6자회담 중대 고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지 20일 만에 재가동을 위한 복구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핵시설 복구 착수라는 '벼랑 끝 협상 전술'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간 갈등이 고조돼 북핵 6자회담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작업을 오늘부터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

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변에 머물고 있는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의 보고를 받은 미측 정부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핵시설 복구 조치에 착수했지만 미측과 IAEA 현지 요원들을 추방하는 등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는 비핵화 진전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6자회담 과정에 대한 훼손으로 심각한 우려한다."며 "북한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폭스뉴스는 익명의 미측 관리를 인용, 북한의 핵시설 복구작업이 시작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면에 계속/관련기사 5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세계 3대 명주 귀주마오타이가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마오타이영빈주

추석선물세트 판매처 롯데백화점 (본점/각점) E-MART (당첨/응답/가맹/가맹/연수) 1888-7663

마오타이코리아(주)